

광주시 한-중·한-일 청소년 스포츠대회 연이어 유치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서 광주시 노하우 긍정적 작용 평가

“하계U대회·수영대회 등 국제 스포츠 교류 중심지 입증”

광주시가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인 한·중·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를 연달아 유치했다.

광주시는 2020년에 열리는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와 2021년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 청소년 스포츠 교류 선정으로 시는 대한체육회로부터 4억5000만원의 기금 예산을 확보했다.

2020년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에 중학생 160여 명이 참가한다. 7월

에는 광주시 일원에서 종목별 합동 훈련과 친선경기가 치러지며, 11월에는 중국에서 교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일 청소년 하계스포츠 교류는 2021년 8월 열리며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양국 선수단 44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22년 8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교류대회를 통해 훈련과 친선경기 등 스포츠 교류는 물론 문화체험을 통한 화합의 시간도 갖게 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

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시의 노하우가 이번 대회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연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지원에 이어 대한체육회 주관 한·중·한·일 스포츠 교류대회의 잇따른 유치로 광주가 국제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올해 벼 재해보험 면적 67%...전국 최다 가입

영광군 가입률 96% 최고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10만2000ha로 전체 재배면적(15만3000ha)의 약 67%를 차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34만1000ha의 30% 규모다. 지난해 8만8000여 ha보다 1만4000여 ha(16%)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영광이 벼 재배면적의

96%로 가입률이 가장 높고, 강진 87%, 고흥 80%, 장흥 79%, 진도 72% 등 주로 해안지역에서 높은 가입 실적을 보였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은 지리적 자연재해 취약성을 감안한 전남도와 시군 및 농협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활동과 함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높아진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전남도가 가입 기간 연장 등 보험 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반영해온 것도 주효했다.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벼농사의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료도 도비 7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을 확보해 가입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수영대회, 안정적 운영...성공개최 예감”

마글리오네 FINA 회장·이용섭 대회 조직위원장

홀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FINA) 회장과 이용섭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이 대회 초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성공개최를 예감했다.

마글리오네 회장과 이 조직위원장은 14일 오후 남부대 주경기장 MPC(Main Press Center)에서 내외

신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대회 성공을 확실하는 첫 번째는 바로 참가 규모다. 참가국 수에서 역대 최대인 194개국에 참여했다. 이전 최고 기록인 2015년 카잔대회 184개국보다 많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마글리오네 회장은 “경기장과 TV 제작 등 대회 준비와 운영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대가 FINA 가족들이 마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 조직위원장은 “광주대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스포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이번 대회가 수영도시 광주, 수영강국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미국의 공중 돌기 14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팀 테크니컬 루틴 예선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